

중국의 새로운 발전 구도 ‘雙循環(쌍순환)’과 중한 협력에 관한 연구

劉宇*

【목 차】

1. 서론
2. ‘쌍순환’ 발전 구도 제안 배경과 경위
3. ‘쌍순환’ 실시의 문제점과 대책
4. ‘쌍순환’ 배경 하의 중한 협력
5. 맺는말

【초록】

건국 70여 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둔 중국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5년마다 어떤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각국 정부와 학계는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다. 이 5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본문은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가 제기된 배경, 중국에서 ‘쌍순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책, 중한 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이행 가능한 협력의 방향을 논술하였다. 중국의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는 중한 양국의 협력에 넓은 지평을 열게 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손을 맞잡고 함께 발전하여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키워드】 쌍순환, 14·5 계획, 신발전 구도, 중한 협력, 글로벌 경제

* 中山大學 國際翻譯學院 韓國語系主任 兼 東亞研究中心主任, 副教授 (rujam@163.com)

1. 서론

현재 인류 사회는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 찬 시대에 속해 있다. 세계의 다극화, 경제의 세계화, 문화의 다양화, 사회의 정보화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목표이지만 세계적으로 심층적인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각국 국민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중국의 국민들도 이 소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신 중국 창건 7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일으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의 기적을 일궈냈다. 선진국이 몇 백 년 동안 걸어온 발전 과정을 최근 몇 십 년 안에 빠른 속도로 거치면서 경제 총량은 세계 제2위로 올랐고 14억 국민은 물질 부족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소강(小康)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 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전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다. 중국이 이룩한 성과는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5년마다 하는 계획과 비전 목표는 각국 정부와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과제다.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향후 5년 동안 기존의 수출입 위주의 발전 모델을 조정하기 위해 “국내 대순환을 주제로 삼아,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제시하였다. 이런 발전 모델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학자마다 처한 환경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만, 중국의 향후 5년의 발전 방향과 구도에 대한 관심은 같다. 많은 사람이 중국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이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세계의 발전도 중국을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 구도인 ‘쌍순환’에 대해 중국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다. 선행연구의 유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썬린(伍山林)¹⁾은 경제 전략 측면에서 ‘쌍순환’ 발전 구도의 함의를 분석했다. 장젠강(张建刚)²⁾은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 국제 정치 경제 지형의 조정, 보호주의, 일방주의의 대두, 중미 충돌의 심화, 중국 내 각종 모순 부각 등의 환경 요인을 분석

1) 伍山林, 「“双循环”新发展格局的战略涵义」, 『求索』, 第6期, 湖南省社会科学院, 2020, pp.90-99.

2) 张建刚, 「畅通国内国际双循环繁荣我国经济的途径研究」, 『毛泽东邓小平理论研究』, 第9期, 上海社会科学院, 2020, pp.12-19, p.108.

하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에 동력을 더할 것을 제기하였다. 등즈용, 리청밍(董志勇, 李成明)³⁾은 신중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귀칭(郭晴)⁴⁾은 발전 단계별 내외 경제 순환 발전 특징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과정을 관찰·분석했다. 팡쑹치(方兴起)⁵⁾는 전통과 현대 경제학 이론에서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내적 연결과 외적 표현을 분석해 중국 내 순환이 원활할수록 국제 대순환 참여에 유리하다고 했다. 장샤오위엔과 멩리쥔(江小涓, 孟丽君)⁶⁾은 ‘쌍순환’의 결정요인, 중국 경험, 국제 흐름을 학술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 분업 형태에서 변화, 중국 경제 발전의 내적 순환과 외적 순환의 위상 변화와 그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장밍(张明)⁷⁾은 산업 구조, 소비구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역경제 통합 등을 분석했다. 우즈웨이(牛志伟)⁸⁾외는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위상을 조사했으며,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성의 새로운 경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우팅팡(周庭芳)⁹⁾외는 공급 측면을 바탕으로 ‘쌍순환’ 시스템의 이론적 논리, 작동 메커니즘 및 실시 경로를 검토했다. 타오이타오(陶一桃)¹⁰⁾는 40여 년간 선전(深圳)개혁개방의 성과를 총결하고 선전이 가진 강점과 부족함을 분석하면서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에서 선전이 자신의 지역 및 독특한 요소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상기 학자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국 내 상황만을 논하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쌍순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관련 논문은 최필수, 이현태¹¹⁾의 「‘쌍순환’ 구상과 14·5계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한 편뿐이다.

- 3) 董志勇·李成明, 「国内国际双循环新发展格局: 历史溯源、逻辑阐释与政策导向」, 『中共中央党校学报』, 第24卷 第5期, 中共中央党校, 2020, pp.47-55.
- 4) 郭晴, 「“双循环”新发展格局的现实逻辑与实现路径」, 『求索』, 第6期, 湖南省社会科学院, 2020, pp.100-107.
- 5) 方兴起, 「构建以国内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 『马克思主义与现实』, 第2期, 中共中央编译局当代马克思主义研究所, 2021, pp.68-74.
- 6) 江小涓·孟丽君, 「内循环为主、外循环赋能与更高水平双循环——国际经验与中国实践」, 『管理世界』, 37卷 第1期,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发展研究中心, 2021, pp.1-19.
- 7) 张明, 「如何系统全面地认识“双循环”新发展格局?」, 『辽宁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8卷 第4期, 辽宁大学, 2020, pp.1-8.
- 8) 牛志伟·邹昭晞·卫平东, 「全球价值链的发展变化与中国产业国内国际双循环战略选择」, 『改革』, 第12期, 重庆社会科学院, 2020, pp.28-47.
- 9) 周庭芳·王涛生·刘志忠, 「双循环新发展格局的理论逻辑与实现路径」, 『学术研究』, 第5期, 广东省社会科学界联合会, 2021, pp.85-91.
- 10) 陶一桃, 「构建“双循环”新发展格局中的深圳独特功能与使命」, 『特区实践与理论』, 第2期, 中共深圳市委党校, 2021, pp.20-26.
- 11) 최필수·이현태, 「쌍순환 구상과 14·5계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중소연구』, 제44권 4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21. pp.151-196.

중국이 제기한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쌍순환’ 발전 구도를 제기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제기 경위를 서술하고, 3장에서는 ‘쌍순환’을 실시하는 데 있어 중국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쌍순환’ 배경 아래 중한 협력에 대해 몇 가지 건의 사항을 제기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이 연구를 통해 중한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쌍순환’ 발전 구도 제안 배경과 경위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는 시진핑 주석이 2020년 이후 거듭 강조해 온 문제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높은 관심을 보인다. 특히 이 내용은 19기 5차 중국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국민 경제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한 건의(이하 「건의」로 약칭함)」에 채택되어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 신발전 구도는 “중국의 발전단계,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국제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강점을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¹²⁾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제기한 시대적 배경을 연구·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1) ‘쌍순환’ 발전 구도 제안 배경

(1) 발전 단계의 업그레이드로서의 ‘쌍순환’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는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바탕을 둔 것이다. 신중국 창건 초기에는 국내 대순환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1978년 개혁개방 후 점차 국제 대순환에 융합되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중국의 생산요소가 매우 불균등한 상태였다. 1980년의 경우 세계 노동력 시장에서 중국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2.4%였지만, 자금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해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12) 习近平, “在经济社会领域专家座谈会上的讲话”,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08.25, http://www.gov.cn/xinwen/2020-08/25/content_5537101.htm [2021.07.15.]

8%,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비중은 0.5%에 불과했다.¹³⁾ 이렇듯 불균형적 상태에 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고, 잠재된 거대한 내수시장도 형성시킬 수가 없었다.

이러한 중국이 점차 국제 순환에 융합된 후, 특히 2001년 세계 WTO에 가입한 후에 노동집약형 제품의 대량수출을 통해 경제는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미 100조 위안을 초과하였고 1인당 GDP도 2년 연속 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중국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에 끼친 연간 기여도는 30%를 넘는다.¹⁴⁾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형성했고 국가의 전체적인 혁신 능력, 산업 능력, 산업 현대화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어 이미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다. 신 중국이 창건된 후 특히 개혁개방 이래 축적된 튼튼한 종합적 국력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경제 대국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드시 국내 순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 발전 차원에서나 경제 성장의 기본 특징 차원에서나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해 ‘쌍순환’ 성장 구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2) ‘쌍순환’의 환경 요인

국내외 환경 변화는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위기로 인한 금융위기가 빠르게 전 세계를 휩쓸었고, 미국·일본·브라질·영국 등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경제 위기 속에 빠졌으며, 중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대외 경제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국내 시장이 국민경제 순환을 주도하는 특징이 뚜렷이 증가되면서 경제 성장의 내수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부터 중국의 대외 순환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8년 이후 중미 무역 마찰과 화웨이(華為) 및 기타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탄압이 그 예이다. 중미 무역 마찰은 무역, 과학 기술, 금융, 외교, 지정학, 국제 여론, 국제 규칙 및 기타 분야로

13) 江小涓·孟丽君, 「内循环为主、外循环赋能与更高水平双循环——国际经验与中国实践」, 『管理世界』, 37卷 第1期,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发展研究中心, 2021, p.7.

14) 国家统计局年鉴,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20/indexch.htm> [2021.06.30.]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다른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며 탈(脫) 중국화하고 과학 기술 전, 금융 전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시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바이든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추세는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 50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수는 469만 명을 넘어섰다.¹⁵⁾ 코로나-19는 글로벌 무역과 경제 왕래에 큰 영향을 끼쳤고, 국제항공, 국제 관광, 비즈니스 거래 등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면서 외부순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복잡한 외부환경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성장 구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3) ‘쌍순환’ 구도 구축 여건

중국 경제는 이미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할 기본 여건을 갖추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국제경제 무대에서 급부상하면서 중국의 산업 사슬은 생산, 유통, 분배 등의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산업 사슬에 빠르게 융합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62.8%¹⁶⁾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대외 경제 무역의 중요성이 컸다. 그러나 외부환경의 심각한 변화로 말미암아 중국은 반드시 주동적인 발전 구도를 구상해야 한다. 사실 중국은 국내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할 여건을 갖추었다.

생산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공업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UN 산업 분류에 속한 모든 공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공업 부문에 있어 큰 분류 39개, 중간 분류 191개, 작은 분류 525개를 갖고 있어 아주 풍부한 공업 기초를 갖고 있다. 또 시장 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 규모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2019년 말까지 중국의 60% 가구, 즉 4억에서 6억의 인구가 중등 소득층에 속하며 이는 거대한 소비 계층이자 미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¹⁷⁾ 중국 경제가 갖춘

15) 全球疫情实时统计网, https://sa.sogou.com/new-weball/page/sgs/epidemic?type_page=VR [2021.09.22.]

16) 国家统计局年鉴,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20/indexch.htm> [2021.07.28.]

17) 黄群慧, 「“双循环”新发展格局: 深刻内涵、时代背景与形成建议」, 『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1卷 第1期, 北京工业大学, 2021, p.11.

산업 사슬, 가치 사슬, 자금 사슬, 인재 사슬 등의 비교 우위는 ‘쌍순환’ 새로운 발전 구도가 요구하는 규모 경제의 기초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백 년 사이 한 번도 없었던 급변하는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 내 초대형 시장을 이용하여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쌍순환’의 새로운 구상을 제기하게 되었다.

2) ‘쌍순환’ 발전 구도 제안 경위

(1) ‘쌍순환’의 제안

시진핑 주석이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제안할 때부터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한 「건의」에 포함되기까지 하나의 발전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현재 공개된 문헌을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쌍순환’을 제기한 것은 2020년 4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 주석은 이 담화에서 “국내 순환이 원활할수록 글로벌 자원 요소에 대한 중력장이 형성될 수 있다”,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 국제 두 트랙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국제경쟁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강점을 조성해야 한다”¹⁸⁾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짜는 데 중요한 사상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시 주석은 여러 자리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함과 동시에 ‘쌍순환’의 배경, 내용, 경로, 정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을 했다.

2020년 5월 23일, 시진핑 주석은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위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각 분야를 관통시켜 점차적으로 국내 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해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위를 육성해야 한다”¹⁹⁾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의 범주에 대해 상세하게 논술했다.

2020년 7월 21일, 시진핑 주석은 기업가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중앙에서 제기한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의 주요 고려 사항을 다시

18) 习近平, 「国家中长期经济社会发展战略若干重大问题」, 『求是』, 第21期, 中共中央机关, 2020, p.6.

19) 习近平, “坚持用全面辩证长远眼光分析经济形势 努力在危机中育新机于变局中开新局”, 『人民网』, 2020.05.23, <https://baijiahao.baidu.com/s?id=1667521698308039268&wfr=spider&for=pc> [2021.07.06.]

설명했다. “오늘날 세계는 백 년에 한 번도 없었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어 ‘시장과 자원이 모두 외부에 의존(兩頭在外)’하는 발전 방식이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보호주의 강화, 세계 경제 침체, 세계시장 위축 등 불안한 외부환경 하에서 중국은 반드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장 우위를 충분히 살리고 국내 경제의 번영과 국내 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국 경제발전에 동력을 일으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²⁰⁾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20일, 시진핑 주석은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창장(長江) 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는 간담회를 주재하여 “현재 세계시장이 위축된 환경에서 중국은 반드시 힘을 모아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국내 최대 규모 시장의 우위를 발휘해야 한다. 국내 순환을 주체로 하여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은 인재가 풍부하고, 과학 기술 수준이 높으며,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산업 사슬, 공급 사슬이 상대적으로 완비되어 있으며, 시장 잠재력이 큰 다양한 우위를 살려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경로를 적극 탐색해야 한다”²¹⁾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시 주석이 지역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지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발전 구도에 융합할 것인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

상기 네 차례의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은 중국의 발전단계, 환경, 여건의 변화와 외부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통찰과 국내 발전 우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한 것이다. 동시에 시 주석의 이와 같은 주요 발언은 새로운 발전 구도의 기본 함의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바로 지금 말하는 ‘국내 대 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한다’라는 핵심적인 의미다.

(2) ‘쌍순환’ 구도에 대한 논술 심화

2020년 8월 24일, 시진핑 주석은 경제와 사회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소집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9기 5차 전원회의의 소집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한 일부 중대한 판단과 중대한 전략은 제5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대

20) 习近平, “在企业家座谈会上的讲话”, 『新华社官网』, 2020.07.21, <https://baijiahao.baidu.com/s?id=1672838953450500876&wfr=spider&for=pc> [2021.07.10.]

21) 习近平, “紧扣一体化和高质量抓好重点工作 推动长三角一体化发展不断取得成效”,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08.22., http://www.gov.cn/xinwen/2020-08/22/content_5536613.htm [2021.07.23.]

한 「건의」에 기재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간담회에서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 나는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 새로운 발전 구도는 중국의 발전단계,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시한 것이며 중국의 국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는 또 “물론 새로운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개방적인 국내·국제 이중 순환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세계 경제와의 연계성이 더욱 긴밀해지며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시장 기회가 더욱 넓어져 국제 상품과 요소 자원을 끌어들이는 중력장으로 될 것이다”²²⁾ 시 주석의 이번 중요한 발언은 심사숙고한 것이다. 이로써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에 대한 사회적인 일부 오해와 오독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했다.

현재 역 글로벌화의 흐름이 대두되고 있지만 과학 기술혁명의 발전과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글로벌화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이처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중국이 국문을 닫아버리고 국내 순환만 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시 주석은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 대순환이 아니라 개방적인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 구도라고 강조했다. 이 논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건의」에 기재되었다. 「건의」의 5장 16조에서 특별히 ‘강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배치를 하였으며, ‘강대한 국내 시장에 의하여 생산, 분배, 유통, 소비 각 단계를 관통하고, 업종 독점과 지방 보호를 타파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자’라고 강조하였다.²³⁾

3. ‘쌍순환’ 실시의 문제점과 대책

시진핑 주석의 일련의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발전 구도의 핵심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와 국제 쌍방향 순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 구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현재 학술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본고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시 주석의 새로운 발전 구

22) 习近平, “在经济社会领域专家座谈会上的讲话”,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08.25., http://www.gov.cn/xinwen/2020-08/25/content_5537101.htm [2021.07.15.]

23)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20.11.03.,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 [2021.08.01.]

도에 관한 일련의 논술과 결합시켜야 한다고 본다. ‘쌍순환’은 중국 국내 시장의 순환에서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순환으로 이어져 중국과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두 가지 측면의 순환이다. 시 주석은 “중국이 우선 자기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²⁴⁾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고 본다.

1) 내부 순환의 문제점과 대책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다는 것은 중국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 속에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19가 계속 번지는 상황에서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시장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중국은 급변하는 외부 불안정에 대응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인구 대국의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 비록 중국은 방대한 시장이 있지만 동시에 문제들도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국내와 국제의 이중 순환 발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국내 시장에 의존해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 각 고리를 관통하는 국민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1) 공급과 수요 구조 최적화

경제발전은 여러 요소들의 종합적인 작용 결과이지만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은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다. 현재 중국의 공급과 수요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과잉생산 등 문제점은 이미 중국 경제의 고품질 성장, 형태 전환을 제약하는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지금 중국의 공급 체계는 전반적으로 중저가 제품이 넘쳐나고, 프리미엄 제품의 공급이 부족하다. 산업구조 문제를 보면 저부가가치 산업, 고소비·고오염·고배출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 친환경, 저탄소 산업,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비중은 낮기 때문에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GVC)의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²⁵⁾ 그래서 공급구조를 최적화하고 공급체제와 국내 수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4) 习近平, “紧扣一体化和高质量抓好重点工作 推动长三角一体化发展不断取得成效”,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08.22., http://www.gov.cn/xinwen/2020-08/22/content_5536613.htm [2021.07.23.]

25)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供给侧结构性改革?fromtitle=供给侧改革&fromid=18825192> [2021.07.25.]

이런 상황 하에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은 생산 공급에서부터 시작하여 공급체계의 질과 효율을 꾸준히 높여나가는 것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관건이 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 요소 생산성 제고,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 무효 저급 공급 축소, 효율적 공급과 중고가 공급 확대 등이 가장 중요하다. 첨단 장비 제조와 전통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첨단 기술 함량·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저탄소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 보호 체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법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하여 기업들이 신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강력한 시장 수요 잠재력과 공간을 갖고 있고, 국민경제 순환의 원활한 관건은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고 공급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공급과 수요는 변증법적 통일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내수 시스템 구축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소비는 사회 재생산의 중착점이자 새로운 재생산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소비 증가 추세에 발맞춰 소비 잠재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소비의 기초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소비 잠재력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을 높이고, 중위 소득층의 규모를 늘려 중간계층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완전한 내수 시스템 육성을 가속화하고, 내수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며, 소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기초적인 역할과 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새로운 발전 구도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공급의 질 향상과 수요 차원을 효과적으로 배합시켜야 한다. 공급과 수요는 국민경제운영의 모순된 통일체로 서로 대립하고 상호의존하며 상호 전환을 한다. 따라서 소비 침체를 해소하고 소비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오직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각 단계를 관통하여 공급과 수요의 플러스 피드백 메커니즘을 세워야만 공급과 수요의 상호 배합과 시너지 작용을 촉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수급 동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2) 적극적인 과학 기술 혁신 추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과학 기술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 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유전자, 바이오기술, 뇌과학·유뇌연구, 임상 의학과 건강, 우주·심해·극지 탐사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 과학 기술 혁신은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데 관건적인 방책이다. 미국 등 국가가 중국의 화웨이(華為), 중싱(中興) 등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과학 기술 자립 자강의 중요성과 산업 사슬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말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 기술의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는 것은 중국 국내 대순환을 원활히 하고 국제 대순환에서 주동적 지위 취득에 관건이다.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건의」 세 번째 부분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한동안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 향상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과학 기술 인재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 사회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입을 늘여 기초 연구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혁신형·응용형·기능형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둘째, 기초 연구와 원시적인 혁신에 집중력을 돌려야 하고 응용 연구를 강화한다. 중국은 아직 핵심 기초 부품, 선진 기초 공정, 핵심 기초 소재, 산업 기술 기반 등에 취약하므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혁신의 적극성을 강화하고 힘을 모아 핵심기술 공략전을 잘하고 과학 기술 자립 자강의 원칙을 견지하며 산업체인 공급 사슬의 우위를 찾아 단점을 보완한다. 넷째, 국제 과학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 기술 능력을 향상시킨다. 과학 기술 혁신은 향후 한동안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3)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중국은 지금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제6차 전국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륙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현역군의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 인구는 6억 6500만 명으로 49.68%, 시골 거주 인구는 6억 7400만 명으로 50.32%를 차지한다. 비록 제5차 전국 인구조사에 비해 도시 인구의 비중이 13.46% 상승하였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²⁶⁾ 중국은 현재 지역 간 발전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크며 이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발전 격차는 흔히 발전 공간으로 된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요소 평등 교환과 쌍방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농업 발전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농촌 사람은 도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도시 사람은 농촌에 가서 토지를 청부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고 공동 번영을 모색하며 농업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 중심도시와 도시군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현대화된

26) 人口普查数据库,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pcsj/> [2021.07.28.]

도시권을 건설해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경제 순환은 국내 대순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많은 농민이 도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수준이 높아져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전략 통합, 시장 일체화 발전 등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역 분업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산 지역, 생태 기능 지역의 3대 공간 구도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상위 제품을 제공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발달 지역과 미개발지역, 동부,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의 공동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해야 한다.

2) 외부 순환 문제점과 대책

국내 대순환을 주제로 한다는 것은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국내와 국제의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을 이룬다는 것이다. 국내 대순환과 국내 국제 쌍순환의 관계로 볼 때 국내 순환은 기초이고 양자는 변증법적 통일체다. 국제시장은 국내시장의 연장이고, 국제 순환은 국내와 국제의 이중 순환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은 국제 대순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산업 사슬 공급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미국 등 주요 나라의 대중국 압박과 역제를 불러왔고, 외부 환경은 중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1) 온당한 대국 관계 처리

한때 중미 간 관계를 ‘밸러스트’로 형용해 왔지만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일부 미국 학자들은 중미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며 ‘중국 위협론’을 내놓았다. 미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1991년에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14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2015년에는 386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²⁷⁾ 미국이 ‘301조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7월 6일부터 중국의 340억 달러 수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제때에 반제(反制) 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은 양자 간 경제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이래 미국은 중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키면서 일부 국가들을 부추겨 ‘탈 중국화’를 시도해 왔다.

27) 任靚, 「特朗普贸易政策与美对华“301”调查」, 『国际贸易问题』, 对外经济贸易大学, 2017, p.157.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국 관계를 온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미 관계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으며 충돌하는 것보다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중미 무역마찰 문제를 온당하게 해결해야 세계 경제 금융 불안으로 인한 대변동을 막을 수 있다. 이때 중국은 서양 전통 및 신흥 대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중-미-러, 중-미-유럽, 중-미-일 등 중요 삼각관계를 잘 활용하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 특히 한중일 삼국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미 관계는 협력하면 서로 살고, 싸우면 서로 손해 볼 것이다. 따라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면서 안정된 글로벌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발전 구도는 바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되 국제 대순환을 배제하지 않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서로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2) 양호한 경영 환경 조성

2019년 10월 24일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영 환경 보고서 2020’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경영 환경 세계 순위가 2018년 78위에서 올해 31위로 크게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독점 업종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수력발전, 전기망, 철도망 등과 같은 자연 독점 업종의 행정적인 독점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점차 강대한 시장 독점 역량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둘째, 차별화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의 생산 요소 획득, 시장 진입 허가, 경영 운영, 정부 조달과 입찰 등에서 불공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셋째, 행정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행정 원가가 비교적 높은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경영 원가, 특히 세금 부담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세계은행이 2020년 ‘세계경영 환경 보고서’에서 추산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세율은 64%로 미국의 1.46배다.²⁸⁾

정부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더욱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하고 독점을 반대하며, 혁신적인 규제와 법 집행을 규범화하여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잘하는 것은 국내 순환을 원활히 하고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 순환을 잘 하려면 국제규칙에 적응해야 하며 국제규칙 중 불합리한 부분은 의논하여 고치고, 합리적인 부분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더욱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내 국제 쌍방향 순환의 중요한 기반이다.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잘 보완하

28) 社科院工业经济研究所, “我国营商环境目前存在的主要问题有哪些?”, 2020.08.27., <http://www.china-cer.com.cn/shisiwuguihua/202008277831.html> [2021.08.03.]

고 국제 규칙, 표준 등에 따라 현대화된 경제 무역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대외 개방과 국내 개혁, 대내 유치와 대외 진출, 외부 수요와 국내 수요가 서로 촉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세계 경제와의 연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중국의 경영 환경이 좋아야만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과 더 큰 규모의 경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더 넓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상품과 요소 자원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 점포를 중국에 남겨두고 중국 소비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중국 내 공급의 질을 높이고 국내 경제와 소비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업 과학 기술 수준 향상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의 산업분류에 속한 모든 산업 분야를 보유한 나라이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공장’, ‘제조 대국’으로 불려왔지만, 세계 산업 사슬에서 중국의 위치는 아직 높지 않아 ‘제조 강국’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중국 공정원이 주도한 ‘중국 제조 강국 발전 지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과 산업 사슬의 우위는 주로, 규모와 분포 등 측면에서 좀 강하며, 생산 능력,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등 면에서 미국·일본·독일의 제조업과의 차이가 아직 적지 않다. 그리고 일부 산업과 분야에서는 산업기반(첨단 장비, 핵심부품, 기초 연구 등 포함)이 아직 취약하다. 특히 광각기(집적회로 산업), 프리미엄 반도체(통신장비 산업), 베어링·운행통계 시스템(케도교통장비 산업), 가스터빈열부품(전력장비 산업), 디자인·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항공기·자동차 등) 등 산업 분야의 대외의존도가 아직 높다.²⁹⁾

상기 어려움을 공략하려면 과학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 그동안 국제 순환에 참여해온 점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대외 순환의 질과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 산업 사슬과 공급망을 안정시킨다. 국내 대순환의 핵심 요소인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분야가 개방된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새로운 과학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세계 무역과 산업 분업 구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현재 국제 경제의 대순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동력이 약화되고 세계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국

29) 湖南智库, “中国的产业链短板与追赶路径”, 2020.08.21., https://www.sohu.com/a/414189630_100006058 [2021.08.03.]

경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규모 효과와 집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거대하고 지속적인 동력 에너지를 방출하며,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며, 국제 국내 이중 순환을 활성화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4. ‘쌍순환’ 배경 하의 중한 협력

2021년은 중한 수교 29주년이 되는 해다. 30년 가까운 협력 과정에서 양국은 ‘우호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 그동안 마찰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좋은 정치 관계 덕분에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2년 63억 8000만 달러였던 무역액은 2018년 3000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급증했다.³⁰⁾ 현재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 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 파트너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한국은 오랫동안 ‘선미후중(先美後中)’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종합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매력은 시장이 크고 기회가 많다는 데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고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발전이 한국의 경제 무역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21년 4월 4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중국과 한국은 ‘영원한 이웃,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³¹⁾ 내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은 상반기에 중한관계 미래위원회 진척을 가동하여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기획, 설계하고 중한 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쌍순환을 시행한 배경에는 중한 합작 분야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지면의 제한으로 본문에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논술한다.

1) 산업분야 협력 활성화

30) 류우, 「关于中韩贸易关系及后疫情时代合作的思考」, 『아시아연구』, 제24권 2호, 한국아시아학회, 2021. p.226.

31) 中国日报网, “王毅同韩国外长郑义溶举行会谈”, 2021.04.04., <https://baijiahao.baidu.com/s?id=1696078496489709766&wfr=spider&for=pc> [2021.04.06.]

중한 양국 간의 협력 분야는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한 「건의」에서 찾을 수 있다. 제12조에서 차세대 정보 기술(IT),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및 항공 우주, 해양 장비 등 산업이 중국의 발전 싹종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다. 중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다른 나라와 체결할 때는 없던 품목인 철강 섬유 에너지 해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시켰다. 이런 분야는 마침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 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다.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입 업은 세계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입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에 속하고 제조업에서도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무기 연료, 선박, 플라스틱, 철강 제품, 통신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중한 경제 무역 협력 분야는 매우 넓다.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의 범위는 반드시 전통 제조업에서 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의료, 물류, 문화,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³²⁾ 또 에너지, 환경보호, 기후변화 등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미래 싹종 산업은 바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방향이다. 중국의 넓은 시장은 누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³³⁾ 신제품이 중국에서 팔려야 대량 생산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경쟁상대로 보지 말고 협력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시장이 크고, ‘거국 체제’³⁴⁾가 있어 난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신제품 생산 규모가 가장 크고 속도도 빠르며 중국에 진출하면 교역 기회를 더 많이 얻을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한 산업단지 활성화

최근 몇 년 동안 중한 양국의 무역액은 줄곧 2400억³⁵⁾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스

32) 류우, 「关于“一带一路”背景下中韩经贸合作研究」, 『동북아문화연구』, 제53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p.248.

33) 이종찬·윤관진·채상수, 「한중 무역변화에 대한 한중 FTA 발효효과 분석」, 『중국학』, 제60집, 대한중국학회, 2017.09, p.266.

34) 거국 체제란 국가의 힘, 즉 국가의 인력, 물력, 재력을 동원하여 국익을 최고 목표로 어떤 중대한 프로젝트를 돌파하는 작업 체계와 운영 메커니즘을 말한다.

35) 韩国贸易协会,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2021.08.05.]

태그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을 상충 돌파하기가 어렵다. 2014년 7월 중한 정상회담에서 중한 경제 무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조치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가동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한국이 새만금, 중국이 산둥 옌타이(煙台), 장쑤 옌청(鹽城), 광둥 후이저우(惠州) 등 3개 도시에 각각 '한중/중한 산업협력 단지'를 설립해 각종 정책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산업 연결과 기업 우위를 상호 보완하는 중한 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이다. '중한 산업협력 단지'는 이미 운영을 시작했지만, 사드 사태, 중미 무역전쟁, 미국이 부추긴 '탈 중국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으로 발전 속도가 더디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세계적 정치·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많고 또 중국이 '쌍순환'을 하는 상황에서 중한 산업단지 협력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중한 산업단지는 인터넷+, 신에너지, 바이오, 식품, 스마트 제조, 물류 등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육성해 규모 있는 혁신기업과 초창기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협력 모델을 형성하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 시대 배경에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가 양국 경제 무역의 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는 양국 경제 무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떠올랐다.

신에너지, 스마트 제조, 물류 등은 한국의 강점이고, 바이오, 식품, 가공 등은 중국의 강점이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 드론, 반도체, 철강,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중한 산업단지는 양국 간 무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 연동을 촉진할 것이며, 전통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새로운 성장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맺는말

중국은 건국 7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이 주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5년마다의 계획과 목표는 각국 정부와 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해다.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양두 재외(兩頭在外)', '대진 대출(大進大出)'³⁶⁾의 발전 패러다임을 조정하고, 시진핑 주석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 국제 쌍순환이 서로 촉진되는

36) '양두 재외(兩頭在外)', '대진 대출(大進大出)'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실시한 원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제 발전 모델이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제시했다. 본문은 ‘쌍순환’ 발전 구도를 제시한 시대 배경과 경위를 서술하고 ‘쌍순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국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이 실시하는 ‘쌍순환’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중한 양국이 취해야 할 협력 방식에 대해 논술했다.

중국은 국내 대순환 측면에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는 수급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생산능력 과잉을 해결해야 하며, 공급이 주로 중하위에 집중되고 고급 제품의 공급이 부족하다. 둘째, 중국의 과학 기술 수준은 많이 발전했지만 선진국의 수준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과학 기술 혁신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전국이 힘을 모아 공략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외 순환 면에서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국 관계를 반드시 온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浮上)에 맞서 미국이 2018년 무역전쟁을 일으킨 상황을 중국이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다뤄야 한다. 둘째, 시장 독과점, 불공정, 비효율의 문제를 없애고,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세계의 공장’, ‘제조 대국’이라 불리지만, 세계 산업 사슬에서 위치가 높지 않고 ‘제조 강국’과 거리가 있는 만큼 산업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고,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국내 순환이 주체가 되는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구도는 중한 양국의 협력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한 「건의」에서 제시한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항공 우주 및 해양장비 등의 산업에서 협력하여 중한 산업 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급부상하는 추세를 막을 수가 없고, 한국은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세계 경제에도 자리 잡고 있으며 중한 두 나라는 서로 경쟁자가 되지 말고 손잡고 함께 나아가면서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

- 류 우, 「关于中韩贸易关系及后疫情时代合作的思考」, 『아시아연구』, 제24권 2호, 한국아시아학회, 2021.
- 류 우, 「关于“一带一路”背景下中韩经贸合作研究」, 『동북아문화연구』, 제53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 박명호,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일고찰 - 한중일 비교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6권 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9.
- 이종찬·윤관진·채상수, 「한중 무역변화에 대한 한중 FTA 발효효과 분석」, 『중국학』, 제60집, 대한중국학회, 2017.09.
- 장정재, 「중국 14·5계획 기회와 성장 요인 모니터링하고 내수 활성화 전략을 부산경제 성장 기회로 삼아야」, 『부산발전포럼』, 부산연구원, 2020.
- 최필수·이현태, 「쌍순환 구상과 14·5계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중소연구』, 제44권 4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21.
- 董志勇·李成明, 「国内国际双循环新发展格局: 历史溯源、逻辑阐释与政策导向」, 『中共中央党校学报』, 第24卷 第5期, 中共中央党校, 2020.
- 方兴起, 「构建以国内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 『马克思主义与现实』, 第2期, 中共中央编译局当代马克思主义研究所, 2021.
- 郭 晴, 「“双循环”新发展格局的现实逻辑与实现路径」, 『求索』, 第6期, 湖南省社会科学院, 2020.
- 黄群慧, 「“双循环”新发展格局: 深刻内涵、时代背景与形成建议」, 『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21卷 第1期, 北京工业大学, 2021.
- 江小涓·孟丽君, 「内循环为主、外循环赋能与更高水平双循环——国际经验与中国实践」, 『管理世界』, 37卷 第1期,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发展研究中心, 2021.
- 牛志伟·邹昭晞·卫平东, 「全球价值链的发展变化与中国产业国内国际双循环战略选择」, 『改革』, 第12期, 重庆社会科学院, 2020.
- 任 靓, 「特朗普贸易政策与美对华“301”调查」, 『国际贸易问题』, 第12期, 对外经济贸易大学, 2017.
- 陶一桃, 「构建“双循环”新发展格局中的深圳独特功能与使命」, 『特区实践与理论』, 第2期, 中共深圳市委党校, 2021.
- 伍山林, 「“双循环”新发展格局的战略涵义」, 『求索』, 第6期, 湖南省社会科学院, 2020.
- 习近平, 「国家中长期经济社会发展战略若干重大问题」, 『求是』, 第21期, 中共中央机关, 2020.
- 张建刚, 「畅通国内国际双循环繁荣我国经济的途径研究」, 『毛泽东邓小平理论研究』, 第9期, 上海社会科学院, 2020.
- 张 明, 「如何系统全面地认识“双循环”新发展格局?」, 『辽宁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8卷 第4期, 辽宁大学, 2020.
- 周庭芳·王涛生·刘志忠, 「双循环新发展格局的理论逻辑与实现路径」, 『学术研究』, 第5期, 广东省社会科学界联合会, 2021.

<기타자료>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供给侧结构性改革?fromtitle=供给侧改革&fromid=18825192> [2021.07.25.]

国家统计局年鉴,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20/indexch.htm> [2021.07.28.]

韩国贸易协会,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2021.08.05.]

湖南智库, “中国的产业链短板与追赶路径”, 2020.08.21., https://www.sohu.com/a/414189630_10006058 [2021.08.03.]

全球疫情实时统计网, https://sa.sogou.com/new-weball/page/sgs/epidemic?type_page=VR [2021.08.10.]

人口普查数据库,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pcsj/> [2021.07.28.]

社科院工业经济研究所, “我国营商环境目前存在的主要问题有哪些?”, 2020.08.27., <http://www.china-cer.com.cn/shisiwuguihua/202008277831.html> [2021.08.03.]

习近平, “坚持用全面辩证长远眼光分析经济形势 努力在危机中育新机于变局中开新局”, 『人民网』, 2020.05.23., <https://baijiahao.baidu.com/s?id=1667521698308039268&wfr=spider&for=pc> [2021.07.06.]

习近平, “紧扣一体化和高质量抓好重点工作 推动长三角一体化发展不断取得成效”,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08.22., http://www.gov.cn/xinwen/2020-08/22/content_5536613.htm [2021.07.23.]

习近平, “在经济社会领域专家座谈会上的讲话”, 『人民网』, 2020.08.25., <https://baijiahao.baidu.com/s?id=1675927213919866518&wfr=spider&for=pc> [2021.07.30.]

习近平, “在经济社会领域专家座谈会上的讲话”,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2020.08.25., http://www.gov.cn/xinwen/2020-08/25/content_5537101.htm [2021.07.15.]

习近平, “在企业家座谈会上的讲话”, 『新华社官网』, 2020.07.21., <https://baijiahao.baidu.com/s?id=1672838953450500876&wfr=spider&for=pc> [2021.07.10.]

中国日报网, “王毅同韩国外长郑义溶举行会谈”, 2021.04.04., <https://baijiahao.baidu.com/s?id=1696078496489709766&wfr=spider&for=pc> [2021.04.06.]

中华人民共和国政府网,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20.01.03.,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 [2021.08.0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双循环, 十四五规划, 新发展格局, 中韩合作, 全球经济				
	영문	Dual circulation, The fourteenth five-year plan, The new development pattern,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Global economy				
<div><div>A Study on the New Development Pattern “Dual Circulation” and China-Korea Cooperation</div><div>Liu, Yu</div><div><p>China has made magnificent achievements over more than seventy years since the country's founding, which attracts worldwide attention. Changes in China, especially the five-year plans and goals, are essential topics for intensive analysis and research by governments and academic circles around the world. The year 2021 marks the beginning of China's “Fourteenth Five-Year Plan”, and the development model has been adjusted for these five years. President Xi Jinping proposed a new development pattern with domestic circulation as the mainstay promoting a positive interplay between domestic circulation and international circulation.</p><p>This article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e new development pattern of the “dual circulati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China's implementation of the “dual circulation”, and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during the Fourteenth Five-Year Plan period.</p><p>South Korea is a close neighbor of China and enjoys particularly favorable geographical advantages i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Moreover, China's “dual circulation” development pattern provides broad space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hina's rise is unstoppable, while South Korea has its place in the world as a developed country in Asia.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work together to contribute to the rapid recovery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p></div></div>						
저 자	류우 / 劉宇 / Liu, Yu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08.10.	심 사 일	2021.08.26.	게재확정일	2021.09.16.